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윤 병 권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고가사다리 소방장비 확보로 인명 및 재산보호 방안 강구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와 대형 상가들은 점차적으로 고층화가 되는데 반하여 부천시 관내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장비)의 경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46m 정도 높이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중·상동신도시 지역을 비롯한 초고층 아파트 및 상가의 경우 최고 높이가 65~70m 이상이 되고 있으며, 부천중부경찰서 옆에 건축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은 35층 이상으로 최대 높이가 105m가 된다고 하는데 스프링클러 등이 갖추어진 건물이라고는 하더라도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 실정에 걸 맞는 소방행정 추진과 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천시의 대책과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소방관련 일반 업무와 인사 및 예산은 물론 장비 등도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바 기초자치단체로의 업무이관을 검토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2. 플래카드 게첨대 일제 정비로 도시미관 제고

플래카드 게첨대를 광고물 협회 등에서 관리하면서 게첨기간과 게첨에 따른 수수료 등을 부과함으로써 불법광고의 무단 게첨사례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첩대에 계첩기간이 끝난 광고물 고정용 끈이나 철사 등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늘어져 있는 등 도시미관저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들로부터 민원성 제보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고물 협회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로 계첩대의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구도심권과 시외곽 지역에 설치된 광고물 계첩대를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 광고물 협회에 대한 교육이나 행정지도 실적을 밝혀주시고 계첩대 관리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이 있는지를 답변하기 바람.

3. 경인국도 등 관내 도로상 U턴장소 주변 강력한 주차단속

경인국도를 비롯하여 관내 모든 도로상의 유턴 지역 주변은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지정이 되어 안내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도로 및 갓길 등에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유턴을 하려는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음.

경인국도 등에는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으며, 국도변 상가, 전철역, 노점상 등으로 도로가 혼잡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유턴 표시 지역 주변에 대한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관내 쌈지공원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로 시민이용 편의 제공

우리 시가 나무가 많은 도시, 공원이 많은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4~5년 전부터 많은 쌈지공원

을 조성하여 왔으나 공원조성 이후 현재 당시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부식되어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어린이 및 노인들의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썸지공원의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찾지 않고 외면함으로 일부 비행청소년들의 온상으로 이용된다는 여론도 있음.

시장께서는 썸지공원(특히 범박 산책로)에 대한 시설물 안전도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을 밝혀주시고, 더불어서 일부 비행청소년들을 계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람.

5. 간선도로 경계석(대리석) 파손 방치 및 주변상가 등의 차량통행을 위하여 경계석 훼손(망실)에 따른 대책 강구

일반도로 및 간선도로상에 대규모 예산은 투입하여 대리석, 경계석으로 교체 도로 미관과 보행자 통행 등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도로변 주변 상가에서 차량통행과 화물 상·하차 등으로 대리석, 경계석이 깨어지고 차량통행에 따른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경계면이 울퉁불퉁한 모습을 하고 있는 등 도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구도심의 일부 상가 및 업소에서는 차량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경계석을 망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시장께서는 도로 경계석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및 망실된 경계석에 현황을 파악하여 개·보수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주변 상가 및 업소 등에서 차량 통행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망실 및 훼손시킨 실태를 파악하여 제출하기 바람.

또한, 임의적으로 망실 및 훼손에 따른 경우 주변상가 및 업소에 대한 행정규제 대책과 원상복구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류 중 혁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시청사 뒤 계남대로변 조각공원설치와 관련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면 일정규모면적 이상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시 미술장식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관내 건축물의 신·증축시 건축주들이 미술장식물을 설치 관리하여 왔으나, 2004년 5월 시청 뒤 계남대로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면서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조각미술품을 이전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앞서서 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일부 언론사의 기사도 있었음.

시장께서는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공원을 조성하게 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계남대로변 조각공원으로 미술품을 이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품 재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술품 재설치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하였는지, 미 이행시 건축물 허가와 사용에 대한 제제방안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2. 주택과 및 이면도로 태극기 게양과 관련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시키고자 태극기를 대로변에 게양하고 있으나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국경일의 경우에도 태극기 게양이 관공서를 비롯하여 일부 주택가 및 아파트를 제외하면 거의 게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태극기 게양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보여 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태극기 게양 범시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게양실적을 평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전 시민들이 태극기 게양에 적극 동참하고 관심을 갖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로변에 태극기 게양 방법을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게양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사고의 우려도 있는 바, 태극기 게양을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는 방안을 도입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도 게양이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동 구도심지역(상동시장 인근) 소방도로 확보 관련

상동시장 인근 구도심 지역은 주택가 도로의 폭이 좁고 입간판과 주변 상가의 노상적치물, 차량의 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소방도로의 기능 확보가 현재로써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상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시장의 물품 반입 등으로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는 항상 복잡하고 화재 및 응급재난 상황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시장계서는 부천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상동 구도심권에 대한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동 시장과 구도심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랍니다.

4. 재래시장 내 노면 포장과 관련

재래시장의 특성상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생선 및 야채상가와 인근식당 등에서 정수되지 않는 물을 방류함으로 노면포장이 쉽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시장계서는 관내 전체 재래시장 노면을 조사하여 물을 쉽게 흡수하는 재질로 포장된 재래시장 노면을 눈, 비와 오염된 물에 강한 재질로 재 포장하여 시민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박 종 국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중앙공원 조깅트랙 재포장 계획은?

중앙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과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보다 좋은 시설 제공을 위하여 시에서 2003년 11월에 조깅코스를 레버콘으로 확대 재포장하였으나 전 구간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일부 하자보수를 하였지만 현재도 하자구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전 구간이 재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전 구간 재포장을 할 계획은 있는지?

2. 부천시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부천시 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수는 현재 6급에서 5급은 13년, 7급에서 6급은 12년, 8급에서 7급은 6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방안은 있는지, 수 십 년간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3. 중동 상가지역 주차장 확보방안은?

시청 주변으로는 오피스텔, 상가 신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운영중인 시외버스터미널은 2005년 8월이면 계약이 만료되고 상동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인바, 현재 사용중인 중동 1151번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계획은?

4. 부천전통공예체험교육장 입주자 선정

공예업체 육성과 유치원생, 학생,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자 공예체험교육장을 2001년 6월부터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2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천시에서는 보다 체험장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공예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입주자를 공모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자의 운영기간은 2001년 7월 25일부터 2004년 7월 24일로 사용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사용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동연장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약해지 통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추진하는 사업인지?

또한 입주자 공모에서 당초의 선정평가기준과 정정공모에서의 선정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사용료는 받았는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은 무상사용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천시 문화상품 개발

부천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시정목표를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발전하는 부천”으로 문화와 경제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 걸 맞는 독창적 이미지(예 - 시마크, 복숭아 등)를 활용한 비상업적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기념식의 기념품, 부천시 방문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5대 문화사업인 부천필을 모티브로 한 문화상품, 만화·캐릭터로써 부천 브랜드 상품, 판타스틱 영화제를 테마로 한 상품, 복사골예술제를 테마로 한 상품, 대학 애니메이션 축제를 테마로 한 상품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박물관도시 부천의 이미지 상품 개발, 기타 부천의 정체성과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각종 기념품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부천시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조 성 국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소각부적합(불연재)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 가정에서 소규모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넣어 수거되었던 불연재 쓰레기로써 화분, 그릇, 항아리, 변기통, 세면대 타일류 등과 유리그릇, 창유리 및 신발류, 피혁류, 폐섬유류(헌옷 등), 장난감류 등에 대하여 소각장으로 반입되어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증가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연재 쓰레기 분리배출을 11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불연재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하여 30ℓ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면서 그 단가를 생활쓰레기 처리봉투와 가격이 동일한 820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분리배출 홍보물에는 화분, 그릇, 항아리, 변기통, 세면대 등도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30ℓ 봉투에 세면대나 변기통이 담아질 수 있는지? 만일 담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
 - ②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불연재 쓰레기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쓰레기가 대부분임. 변기통이나 세면대 타일류 등은 집수리할 때 나오는 쓰레기로써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쓰레기이고 신발류, 피혁류 등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쓰레기임. 1년에 한 번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봉투를 사서 처리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임. 그렇다면 결국 이 봉투는 일반 사업장에 나오는 지정폐기물류, 집수리 등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류 등이 담겨져 배출될 가능

성이 크다고 생각됨. 각 가정에서는 외면하고 사업장에서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던 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과 동일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환영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일반폐기물류를 생활쓰레기 처리비용과 동일한 봉투가격으로 수거하여 이 폐기물을 처리할 시에는 비싼 돈을 주고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결국은 부천시 예산이 추가로 낭비될 것으로 예상됨.

연간 예상되는 불연재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비용, 연간 봉투판매 예상량과 수익금 그리고 봉투판매 비용과 처리비용 대비표를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조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류와 주택 수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봉투에 담아서 내놓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동 장말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 현재 장말경로당은 중동 748-5번지에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3개 경로당이 입주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당초 건축 당시 주택용도로써 여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어지므로, 건축 연면적에 비하여 방이 비좁고 2층, 3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급경사로써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건물도 노후화되어 경로당으로 시설활용도가 빈약한 실정으로써
- 시장님 초도방문시 현안사항으로 보고되어 현재 경로당 신축을 중동 756-7번지 외 1필지(국유지, 현 장말 도당곳 위치)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경로당 이전부지는 당초 장말경로당이 있던 장소로써 북측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경로당 위치로서 적합한 부지로 생각하고 있으나 인근주민 몇 분이 장말도당 당제를 이전하지 않는 한 경로당은 신축할 수 없다는 명분없는 민원을 제기하여 지난 9월 15일에는 중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사항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장말경로당 신축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투자방향과 인간문화재 육성에 대하여

- 우리 부천시의 시정목표는 민선2기에서 3기 전반기까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이었으며 민선3기 후반기인 현재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시민의날 기념사에서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향을 강조하면서 “우리 전통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경기민요, 유·무형 인간문화재가 부천에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천시민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 그동안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자부하면서 그 내부를 살펴볼 때 우리 문화의 육성보다는 외래문화 쪽(부천필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였나 생각되어집니다.
- 최근 3년간 우리 문화 및 외래문화에 대한 각 분야별 투자액현황과 민선3기 후반기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투자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 몇몇 유명한 인간문화재들이 우리 부천으로 전입하여 뿌리내리겠다는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 전입을 희망하는 인간문화재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부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서는 이분들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중동대로변 방림수 간벌 및 이식방안?

- 중동대로변 방림수는 아파트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식재하여 지금은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나 비좁아 식재된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하고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김 삼 중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흥건포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 현재 시민들이 해결을 바라고 있는 민원사항과 관내 기업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원종동 TV실내경마장 상동 이전 문제

- 원종동 TV실내경마장의 상동 이전과 관련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지역주민들과 부천시가 건축물 용도변경을 놓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월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지역주민 대표들은 “TV실내경마장은 도박성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회악으로 상동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 되는 시설을 막아야 한다.” 고 주장한 반면 상인측 대표는 “경기부진으로 상동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도박중독 논리는 비약적 해석으로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입점해야 한다.” 고 맞서고 있어 지역주민과 상인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나 시에서는 법률적 하자가 없는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은 데다 상가 상인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불만이 매우 큰데 시에서는 실내경마장 상동 이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이며 경마장 이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원종동 삼성 홈플러스 매장 허가 관련

- 삼성데스코(주)가 부천시 고강동 일대 300평 매장 규모의 슈퍼마켓 매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천시가 재래상인들의 집단민원에 밀려 건축허가를 보류하자 삼성데스코(주)가 시를 상대로 개점 지연에 따른 손실금액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수백억 원대 행정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 중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고 상인들은 반대하는 등 슈퍼매장 입점에 대해 지역주민 간 의견이 대립되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매장 허가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신중히 고려하여 허가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원종동 경매장 상동 이전 관련과 더불어 행정소송에 따른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앞으로 원종동 삼성 홈플러스 매장 허가와 관련 빠른 시일 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농지 내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꽃 판매행위등과 관련

-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하며는 畓, 田 또는 과수원 기타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꽃가게나 음식 판매행위 등 일반 상거래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부천시 관내 일부 농지 내 꽃 재배 비닐하우스 등을 만들어 놓고 꽃을 재배하면서 불법으로 꽃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농지 내의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방안은

- 현재 우리시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체는 페어차일드코리아를 비롯 신한일전기, 동부아남반도체 등 총 7개 업체로 요 몇 년 사이

부천시지역에 있던 중견기업인 유성기업, 진로 부천공장, 경원세기에 이어 도당동 소재 풍전산업의 이전 검토와 함께 그 동안 끊임 없이 이전설이 나돌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국화장품 부천공장도 이전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국화장품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을 부천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한국화장품이 이전되면 협력업체 등을 비롯한 관내 많은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와 같이 부천에 머물렀던 중견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 얼마 남지 않은 300인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마련, 사업소세 감면, 자금지원 등 다각적이고 과감한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신도시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축 관련

- 최근 부천시의 중동이나 상동신도시 지역에 초고층의 주상복합 건축물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무질서하게 건축되어 지역의 교통난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도시환경의 저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일조권 침해와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학습해야 하는 등 교육환경 여건의 악화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허가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들의 겪는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서 영 석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고강변전소 관련

- 1) 부분별하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지역주민의 대표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번 고강변전소의 경우도 주민이 알지 못하고 주민의 대표도 알지 못해서 주민들로부터 주민의 대표가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를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음.
따라서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시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주민 대표기관의 의견을 묻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상위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공람·공고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강변하지 말고 부천시만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그리고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 시장 취임 이후 지역 현안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전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2004년 9월 3일 산자부가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동안 부천시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오정구청장의 특별현안보고까지 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에게는 이전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결정되는 줄 알고 있다가 산자부의 승인으로 인하여 주민의 문제제기 이후에 사태를 파악해 두 번 죽이는 행정을 초래했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 주민대표들과의 면담 후에 이전지시를 하였는데 그동안 진행경과와 한전과 협의하여 향후 이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 한전 측이 주장하는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시간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 사업의 필요시기를 2006년 10월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전소의 주요 전력증가요인이 여월택지지구, 오정산업단지 모두가 그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까지이다. 이전에 따른 행정적 시기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오 세 완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오쇠동 이주지역의 활용방안은?

항공소음으로 인해 주민이 이주한 지역, 즉 전미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한 부천시의 확실한 활용방안은 있는지? 이 지역을 골프장 등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 의향은 있는지?

2. 내실있는 경로당 운영방안은?

- 1) 부천시 관내 경로당의 지역별(동별) 면적대비 분포현황은?
- 2) 부천시가 앞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로당 계획과 방향은?
- 3) 경로당은 보다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개선방향은?
- 4) 인원수가 적고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일제조사하여 과감하게 통·폐합할 의향은?
- 5) 일부 동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로당을 용도 변경하여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변경 운영할 의향은?

3. 노인요양시설 및 단기 보호센터 확충방안은?

고령사회로 급속한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부천시 관내에도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부천시에서는 이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설립되고 있는 시설까지 포함하여 고작 3개소에 불과하며, 단기보호센터는 전무하고 주간보호센터는 5개소로 수용가능인원도 100여명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200~300여명이 입소할 수 있는 대형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단기 및 주간보호센터 확충 건립할 의향은 있는지?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윤 건 응
- 질문방법 :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부천시의 자문기구 등 각종 위원회 위원 관리는?

- 위원회 위원의 개인별 임기는?
-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등 부천시와 관계있는 자로 교체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2. 최근 1년간 미개최 위원회와 각 위원회별 미개최 사유는?

서면질문 및 답변서

□ 서면질문

- 질 문 자 : 박종국 의원
- 질문일시 : 2004년 10월 12일
- 질문내용(질문서)

- 호텔부지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호텔부지는 중1동 1153번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한 후 1155번지로 부지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예회관 부지는 문예회관 건립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무시하면서 부지 변경을 하는 이유와 호텔 건립시 차량 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야기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상동 신도시는 용도별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예를 들면 일반상업용도에 병원을 신축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차후 이러한 부지도 용도변경을 해줄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답변

◦ 답변일시 : 2004년 10월 29일

◦ 답변내용(답변서)

- 부천시지구단위계획에 의거 호텔부지로 되어 있는 곳은 시청 동편 옆에 있는 중동 1155번지, 8,155㎡로써 지난 3년여 동안 호텔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여러 가지의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디다만 지하철7호선의 건설 등으로 투자환경이 나아져 민·외자투자를 통한 호텔 건립 모집공고를 하게 되었음.

현재 공고와 접수, 전문가심사평가를 통하여 (주)대덕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던 중 중동 1153번지인 문화예술 회관 부지가 문예부지로 너무 협소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현 호텔부지가 계남대로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호텔환경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현 호텔부지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앞이 탁 트이고 조경시설이 잘되어 있는 현 문예회관부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전에 따른 법률검토 및 전문가 의견, 부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임.

- 또한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총 15,474㎡(4,681평)의 규모로 적정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에는 다소 협소하다는 문화예술회관건립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에 따라 현 부지 이외의 건립대상 가능 부지를 조사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수백억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운영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국내 최고의 시설로 건립 후 대관 등을 통해 수십억
으로 예측되는 관리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검토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부지가 협소하여 타 부지를 물색 검토
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에 소요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 바, 긴 안목으로
볼 때 현 부지에 건립하기보다는 적정부지로의 검토가 필요
하며 그에 따라 현 부지의 사용 용도를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써 검토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호텔건립에 따른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사항은 협약서
작성시 법정주차보다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협약체결, 협약이행, 부지임대계약, 건축허가전 관련규정
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체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
- 현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상 문예회관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검토는 개인에게 분양되지 아니한 사유지임을 전제로 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나, 중동 및 상동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개인에게 분양된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시
는 특혜소지 및 파급효과로 인한 도시계획 자체의 혼선이 발생
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문제가 되는바, 중·상동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불가한 입장임.